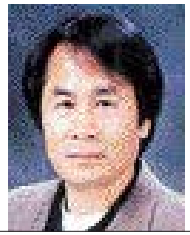


[오피니언]

다산포럼

이승우



무고하게 쫓기는 사람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의 행동은 규범(‘거짓말을 하지 말라’)을 어겼지만, 그러나 비난받아야 안 된다고 상황윤리론자들은 주장한다.

두려움은 있지만, 죄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거짓말의 경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를 향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를 만든다.

거짓말

졌다. 한 여교수의 대담하고 뻔뻔스런 화력 사기 사건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입학한 적도 없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문에 큰 혼란을 겪었고, 무엇보다도 무슬리니 자신이 자기 속임수에 속아 이탈리아 군의 역할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 때문에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거짓말도 있을 수 있다. 정 당방위가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럴 때 거짓말은 약자의 최후수단(ultima-ratio)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바 있는 폴 에크만이라는 심리학자의 ‘거짓말 잡아내기’라는 재미있는 책에 의하면, 거짓말에 동반된 감정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말고도 쾌감이란 것이 있다. 성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난 후에 느끼는 안도의 기쁨, 성취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희생자를 경멸하면서 우쭐해 하는 쾌감 같은 것을 말한다.

까 괜찮다고 생각해 버리는 식이다. 더 그럴 듯한 설명이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고의적인 행동이므로, 거짓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읽은 그 책의 끝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헨리 키친저의 말이 소개되어 있다. ‘속임수를 통해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낭만주의의 환상일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고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전남 핵심사업 내년 예산 대폭삭감이라니

전남도가 중앙정부 각 부처에 요구한 내년도 국고예산 가운데 지역 핵심사업 관련 예산이 전체 삭감되거나 반영률이 크게 떨어져 국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감했다. 또 J프로젝트 간척지 매입비 390억원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선정된 이후 양도-양수를 협의한다’는 정부 방침을 들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부처 반영액은 지난해보다 1천47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전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J프로젝트) 관련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J프로젝트 사업은 전남지역이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장동력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현안사업인 것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전남지역 핵심사업 관련 예산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전남도가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정점 자동차 경주대회인 F1(포틀러 원)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41억원

을 ‘국제대회 미승인’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문화관광부는 전남도가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정점 자동차 경주대회인 F1(포틀러 원)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41억원

시·도, 국제행사 유치 총력 차질 없어야

광주와 전남도가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각종 회의와 학회, 전시회 등 국제행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 공동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 공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방문의 해’는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4년부터 지역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4년 강원을 시작으로 2005년 경기, 2006년 제주, 2007년 경북에 이어 내년

에 광주와 전남이 공동 선정된 것이다. 선정지역에는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과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 20억원이 지원된다.

‘광주·전남 방문의 해’는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고용 창출을 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부전략이다. 시·도는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행사를 골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도는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 국제행사 유치에 성공하길 바란다.

NGO 칼럼

임진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림 단순히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긴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구조는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선택 아닌 필수

통제를 하지 못한 게 1차 원인이다. 소방방재청과 지자체는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라 해수욕장과 강 등을 관리하고 있다.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이 거세면 해수욕장을 통제한다.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이를 지금 하지 않는 게 유일한 규정이다.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피서객 스스로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 먼길을 달려와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외국산 애완곤충 불법판매 근절 대책 세우야

애완 곤충 판매업자가 외국산 곤충을 밀수입 하다가 세관에서 적발됐다. 애완 곤충 판매업자들은 사슴 벌레·장수풍뎠이·거미·달팽이 등이 인터넷 상에서 1만원~수십만원까지 다양하게 거래되는가 하면 곤충과 관련한 동호회도 운영되고 있는 등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점을

적발되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예전 외국에서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 왕우렁이를 마구잡이로 수입, 판매해 외래종들이 토종 물고기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직접 겪지 않았는가.



평상 효과



한낮이면 호랑이나 사자들은 ‘평상’ 위에 올라가 잠을 잔다. 여름밤 마당 대나무 평상에 앉아 하늘을 보며 촌충처럼 박힌 벌을 세던 추억, 수습인이 흘렸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어른들이 많다.

랑 접근조차 않는 것이다. 동물의 왕인 것들이 무슨 경계심이 그렇게 많은지. 당연히 평상은 쓸모없게 방치되다시피 했고 만들자고 제안했던 직원이나 제작자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자녀들, 자연 벗삼아 호연지기 기르는 방향 됐으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방학을 방학답게 보내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대학생을 막론하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온통 학교보충수업이나 학원에 다니고 있으니 말이다.

을 찾는 등 그동안 바쁜 학교 생활로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해야 하지만 말뿐이다. 학교 아니면 학원밖에 없다. 과연 이처럼 지식교육만 시켜 어떻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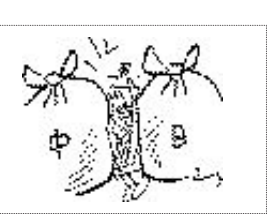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세계적 권위의 경제전문 잡지인 미국의 포천지는 1955년부터 세계 500대 기업의 순위를 매겨 오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아시아 50대 기업 랭킹도 발표한다.

트를 뽑았다. 지난해 1위에 올랐던 액스모빌이 2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기업 중 순위는 일본의 도요타자동차(9위)였다. 올해의 경우 고유가로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6개가 석유관련 기업이라는 게 특징이었던 특징이다.

세계 500대 기업



그러나 500대 기업 모두가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것은 아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첫 500대 기업에 선정됐던 기업중 55%가 사라졌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매출 894억7천600만달러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46위에 오르는 등 14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됐다. 수치상으로 지난해 12개보다 2개 늘었다.

포천 최근호는 올 최고 글로벌 기업으로 매출 3천511억3천900만달러, 순이익 112억3천400만달러를 기록한 월마

를 우리 경제계의 최고 화두인 ‘샌드위치’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광주일보)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prices for both print and online versions.